

2009. 9. 21 제223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문학작품 속 베를린 이야기' 전시 (베를린)
2. '패션주간' 홍보를 위해 시장(市長)이 패션잡지 표지모델로 등장 (런던)
3. 역사적 유흥장소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베를린)

산업·경제

4.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매 지원 (도쿄)
5. 중고 가전제품 보상 프로그램 실시 (미국)
6.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강좌 실시 (런던)
7. 학업을 포기한 청년실업자를 위해 현장실습제도 시행 (런던)

건강·복지

8. '식품안전 조사대' 3기 대원 모집 (도쿄)
9.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뉴욕)
10.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베를린)
11. 고령자의 자가 주택 개조자금 대출 (독일)

목 차

행정·재정

12. 주정부의 주요 회의를 웹상으로 실시간 중계 (뉴욕주)
13. 안 쓰는 중고물품을 판매해 약 12억 원 벌어 (캘리포니아주)

방재·안전

14. ‘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범죄율 급감 (브라질 아시스시)

도시환경

15.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샌프란시스코)
16. 10개 저탄소 근린주구 건설 추진 (런던)
17. Eco-Farmer 인증제도 시행 (도쿄)
1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 전략안’ 발표 (런던)
19. 차량 엔진을 끈 채 냉동·냉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산시장에 설치 (도쿄)

1. ‘문학작품 속 베를린 이야기’ 전시 (베를린)

○ 베를린市는 수도(首都) 캠페인 ‘be Berlin’의 새 기획사업인 ‘문학작품 속 베를린 이야기’전시행사를 엮. 이는 문학작품으로 베를린을 재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 市는 현재 활동 중인 베를린 출신 저명 작가 13명의 문학작품에서 베를린을 묘사한 글을 발췌해 베를린 문학가협회와 옥외광고회사인 Wall AG 후원으로 2009년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하철 역사에서 전시함.

- 베를린 내의 특정 지역과 장소를 묘사한 21개의 짧은 글을 그 지역과 가까운 지하철 역사 내 대형 광고판에 전시함.
- 지하철 이용시민과 관광객은 공공공간에서 베를린에 관한 글을 읽고 해당 지역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하철 역사에서 전시한 글은 현재 수도 캠페인 전시장인 ‘시티 스토어 be Berlin’으로 옮겨져 전시 중임.

(www.sei.berlin.de/presse/pressemeldungen/einzelansicht/artikel/das-beschriebene-berlin-hauptstadtkampagne-und-wall-ag-unterstuetzen-literaturprojekt)

>>> 전문가 검토의견

- 시나 소설, 영화, 연극 등에서 묘사한 도시 이야기는 장소마케팅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귀중한 자원임. 이 자원을 활용해 장소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관광 활성화전략의 핵심임.
- 베를린은 이외에도 도시디자인을 개선하고 주요 가로에서 박물관형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베를린의 관광마케팅 전략을 세밀하게 관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패션주간’ 홍보를 위해 시장(市長)이 패션잡지 표지모델로 등장 (런던)

○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런던 패션주간(London Fashion Week) 25주년을 맞이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패션잡지인 엘르(Elle)의 표지모델이 됨.

- 런던이 혁신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잡지 표지모델로 나섬.

· 엘르는 런던 패션주간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호(엘르 런던호)도 제작해 2009년 10월 한정 판매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438)

한 줄 뉴스

● 미국 피츠버그市

- 민원을 신속하게 전송·접수할 수 있도록 아이폰(iPhone)용 응용프로그램 무상 보급

● 리우데자네이루市

- 환경보전을 주제로 ‘슈퍼 환경미화원’이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TV와 인터넷으로 방영

3. 역사적 유흥장소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베를린)

○ ‘열린 문화재의 날(Tag des offenen Denkmals) 2009’ 행사가 2009년 9월 12~13일 베를린市 전역에서 열림.

- 현재 유럽 45개국 이상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8월이나 9월에 ‘문화재의 날’(European Heritage Days)을 지정해 행사를 벌임. 독일에서는 매년 9월 둘째 주 토·일요일에 ‘열린 문화재의 날’ 행사를 엮.
 - 유럽에서는 유형문화재에 건축물과 조형물뿐 아니라 정원시설,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도 포함함.
 - 문화재로 지정한 장소와 건물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강연회, 전시회, 콘서트, 어린이 행사 등을 진행함.
 - 매년 거의 같은 문화재가 대상이 되지만, 주제를 달리해 같은 건물과 장소라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
- 2009년 행사의 주제는 ‘역사적 유흥장소’임. 市는 일반 시민이 역사적 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베를린 서남쪽 호숫가에 있는 성(城)이나 19세기에 지은 극장, 1950년대에 건립한 영화관 등이 시민의 유흥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춤. 호숫가에 있는 성은 1900년경 시민이 주말이면 자주 찾던 곳임.
 - 성 인근에 1000석 규모의 음식점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1950년대에 세운 영화관을 시민이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만든 영화관과 극장, 야외 호프집을 운영하던 양조장, 시립 수영장, 바, 댄스 홀, 정원이 딸린 음식점 등에서 특별 이벤트를 열거나 과거에 유흥업소가 모여 있던 지역과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티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함.
 - 2009년 행사에 약 30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민은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9/nachricht3602.html)

4.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매 지원 (도쿄)

○ 도쿄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발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都 소재 중소기업에서 제조해 판매한 지 5년 이내의 신상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제외)이 인증 대상임.

- 인증기준은 크게 4가지로, ① 기존 제품과 현저히 다른 우수한 사용가치가 있고, ② 기술 고도화나 생산성 향상,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③ 신상품 생산 및 판매방식과 자금 조달방법이 투명하고 적절하며, ④ 신상품이 都 관계기관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만한 것이어야 함.
- 都는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213개 제품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64개를 인증함. 都 관계기관에서는 인증제품을 시험적으로 구입해 평가하는 '시험 발주'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활동도 지원함.
 - 都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인증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하지만 都가 인증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는 않음.



인증제품의 예: 자동 잠금과 자동 요금부과가 가능한 오토바이 주차기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k8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시험발주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인증상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중소기업, 특히 중소 서비스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판로 개척이므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서울시에서는 ‘Hi! Seoul’ 브랜드가 관광업종이나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공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증제도 성패의 관건은 공공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있으므로 인증상품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함.
 - 단순한 제품 인증에서 탈피하여 인증상품의 공공구매와 함께 민간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 제도의 도입 및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령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최근 ‘녹색성장’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상품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음.

/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jbs66@sdi.re.kr)

5. 중고 가전제품 보상 프로그램 실시 (미국)

- 중고차에 대한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미국 연방정부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 연방정부 에너지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3억 달러(약 3700억 원)를 주정부에 지원하기로 함.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인구에 비례해 10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됨.
 - 중고 가전제품 보상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의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처분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제

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50~200달러(약 6만~24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이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오래된 냉동고나 냉장고, 세탁기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새 제품으로 바꿀 경우 1년에 50~150달러(약 6만~18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www.usatoday.com/money/industries/environment/2009-08-25-appliances-cash-for-clunkers_N.htm)

6.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강좌 실시 (런던)

- 런던개발공사는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무료 강좌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온라인 무료강좌는 유명 회계법인의 전문가를 초빙해 경기 현황, 소비/공급시장 현황과 전망, 이자율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 경기 변화에 따른 재정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일반론(1강좌)과 공공사업 수주에 관한 실전론(2강좌)강좌로 진행됨.
 - 오프라인 강좌는 조찬 토론회(1회)와 생존전략 연속강좌(3회) 형식으로 진행됨.
 - 조찬 토론회는 2009년 10월 13일 회계법인이 주관하여 시장 변동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대주제 아래 소비자·채용·위험 관리, 회계, 전략적 제휴 등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임. 토론 모임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토론을 이끌고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들음.
 - 생존전략 연속강좌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획함. 현금 및 융자 확보방안 등 현장감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질의응답에 비중을 뒀 참여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406)

(www.lda.gov.uk/server.php?show=conEvent.113)

(www.lda.gov.uk/server.php?show=conEvent.114)

(www.lda.gov.uk/server.php?show=conEvent.112)

7. 학업을 포기한 청년실업자를 위해 현장실습제도 시행 (런던)

○ 런던시는 청년실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중퇴자가 현장 경험과 기술을 익히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제도를 시행함. 현재 16~24세 청년의 19%가 실업상태임.

- 런던개발청은 캠던區 등 3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10개 시범 실습사업에 약 14만 파운드(약 2억 8000만 원)를 투입함.

· 시는 최근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구직자 유형별 맞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청소년을 위한 실습제도는 학업 포기자, 실업자, 학습 부진자 등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라디오방송 사업, 캠던 지역의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식당 등에 판매하는 사업, 청소년범죄를 조사 분석하는 6주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됨.

- 런던개발청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378)

한 줄 뉴스

● 도쿄

- 서울 등 아시아 16개 대도시의 청소년 선수 간 교류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니어스포츠 아시아 교류대회' 개최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건수와 피해액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건강 · 복지

8. '식품안전 조사대' 3기 대원 모집 (도쿄)

○ 도쿄都는 '식품안전 조사대'의 3기 대원을 모집함. 식품안전 조사대는 식품안전에 관한 주제를 정해 소모임 단위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한 뒤 이를 정리하여 都 담당부서에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게 됨.

- 3기 조사대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도내 거주자나 직장인이며, 총 50명을 선발함. 이들은 앞으로 의견 교환, 견학 등을 거쳐 주제를 정한 뒤 활동하게 됨.
- 2007년 모집한 1기 조사대는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등을 주제로 분반토의를 하고, 도민포럼에서 공개 토론을 벌였음.
- 2008년에는 1기 조사대가 농약과 식중독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2기 조사대는 식품 유효기간의 경과 등에 따른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문제를 중심으로 분반토의를 한 뒤 都에 의견을 제시함.
- 2009년에는 1기 조사대가 광우병(우해면상뇌증·牛海綿狀腦症)을 주제로 활동하고, 2기 조사대는 대원 각자가 주제를 정한 뒤 해당 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찾집이나 바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8/22j8p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 도쿄都의 식품안전 조사대 운영사업도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해 식품안전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의 하나임. 이 사업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식품안전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서울시의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와 역량 강화 방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학교 식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도 실시함. 하지만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식품안전 교육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교육사업 추진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교육프로그램에 도쿄都의 능동적인 학습방식을 도입한다면 더 나은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경희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skhee@sdi.re.kr)

9.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뉴욕)

- 뉴욕市는 55세 이상의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 고령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일자리를 알선해줌.
 -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의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우선으로 하고, 市와 거래하는 사업체와 함께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컴퓨터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초보자나 미숙련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을 교육함.

- 일반적으로 8~10주 정도 교육을 실시해 현장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관내 구인업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함.
- 레스토랑의 조리 및 서비스 분야 구직자를 위한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기본적인 손님 응대법과 요리 실무 등을 교육함.
 - 이 교육 역시 8~10주가량 실시하며, 교육을 마친 수료생의 취업이 활발한 편임.
- 이외에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직업 윤리 및 탐색 교육으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일대일 상담을 거쳐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
(<http://www.nyc.gov/html/dfta/html/volunteering/employment.shtml>)

10.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베를린)

- 베를린市 통합·노동·사회부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900만 유로(약 16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 ‘장애인의 일자리 공격’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장애가 있는 학생과 직업연수생임. 이들이 졸업하거나 수료한 뒤 일반 직장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상담서비스, 동행서비스체계 구축사업도 시행함.
- 市는 2009년 9월 7일 프로그램 설명회를 2008년 사회통합상을 수상한 식품회사에서 옴. 사회통합상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기여한 기업에 市가 매년 수여하는 상임.
(<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03/137532/index.html>)

11. 고령자의 자가 주택 개조자금 대출 (독일)

- 독일연방 도시발전부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주택 개조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 특히 오래된 주택을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 그 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임.
 -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양로원과 같은 노인시설이 늘어났지만 시설보다 집에서 머물고자 하는 노인이 더 많아짐에 따라 연방정부는 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임.
-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확보한 자금이 8000만 유로(약 1400억 원)인데, 대출 신청자가 많아 4개월 동안 5000만 유로(약 900억 원)를 대출해줌.
 -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개조 사항은 계단 제거, 승강기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면 설치, 욕실과 주방 개조 등임.
 - 신청자는 주택당 최고 5만 유로(약 9000만 원)까지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11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임.

(www.bmvbs.de/-,302.1089066/Foerderprogramm-altersgerecht-.htm?global.back=)

행정 · 재정

12. 주정부의 주요 회의를 웹상으로 실시간 중계 (뉴욕주)

- 뉴욕주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Law)에 따라 주정부가 개최하는 주요 회의결과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회의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함.
-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정부기관의 행정업무 현황과 회의내용 전체를 2007년부터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
 - 각 실·국 및 산하기관, 관내 시정부는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거나 웹상에 회의기록을 남겨둠으로써 누구나 공공정책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회의는 법으로 명시

하여 예외를 둬.

- 시민은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기관·날짜별로 회의 일정을 검색할 수 있음.

(<http://www.dos.state.ny.us/coog/openmeetlaw.html>)

(http://www.ny.gov/governor/executive_orders/exeorders/3.html)

(<http://www.nysegov.com/webcast.cfm>)

>>> 전문가 검토의견

-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임. 이는 의사 결정자나 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함.
- 뉴욕주에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웹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 본회의는 웹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공개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황임.
-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회의와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회의내용과 결과를 웹으로 공개한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정책의회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김찬동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13. 안 쓰는 중고물품을 판매해 약 12억 원 벌어 (캘리포니아주)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8월 28일 주도(州都)인 새크라멘토市에서 안 쓰는 중고물품을 염가 판매하는 행사를 엮.

- 주정부는 자동차나 평면 TV, 노트북, 컴퓨터 등 안 쓰는 물품 6000종 이상을 저렴하게 판매함.

- 주정부는 이번 행사 일주일 전부터 주지사의 사인이 있는 자동차와 고속도로

순찰대의 오토바이를 이베이(eBay) 등 경매 사이트에 올려 2200달러(약 266만 원)에 판매함.

- 주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음.

(<http://latimesblogs.latimes.com/lanow/2009/08/more-than-1-million-in-sales-so-far-at-sacramento-garage-sale.html>)

방재 · 안전

14. ‘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범죄율 급감 (브라질 아시스市)

○ 브라질 상파울루州에 있는 소도시인 아시스市는 2009년 6월 15일부터 군경과 합동으로 범죄를 대상으로 ‘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강도사건이 40%나 감소함.

- 예컨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군경의 불심검문에 걸려 연행된 무직자가 의사에게서 일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일을 시작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해야 함. 30일 뒤에도 직업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걸리면 다시 잡혀감.

- 도심지에 있는 광장에 가보면 불관용 작전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대부분의 시민은 불관용 작전을 지지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 아시스市는 과거 각종 범죄에 시달리던 도시였음. 도둑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훔친 다음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게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사례가 빈번했음.

· 2009년 초 약 2만 5000명의 시민이 市와 군경에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임에 따라 불관용 작전이 마련됨.

- 市는 2009년 6월 치안당국과 함께 불관용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4대 범죄(강도, 절도, 마약, 사회질서 파괴)를 근절하는 데 역점을 둬.

· 불관용 작전을 펼친 결과 자동차 도난사건은 6월 12건에서 7월 7건, 강도사건은 6월 33건에서 7월 17건, 살인사건은 6월 3건에서 7월 1건으로 감소함.

- 市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무직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힘.

(oglobo.globo.com/diariosp/posts/2009/08/05/cidade-de-assis-prende-51-por-vadiagem-211358.asp)

도시 환경

15.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지붕에 태양전지판이 있는 친환경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할 예정임.

-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1200개의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400개의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한 지진과 형태의 캐노피(Canopy)가 만들어짐.

- 캐노피는 산업폐기물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재활용해 제작하였고, 곡선 모양의 중간에 태양전지를 연결했음.

- 태양전지를 이용해 만든 에너지는 버스의 도착시간을 알리는 LED 전광판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 쓰고, 남은 에너지는 전력망을 통해 판매함.

(http://archpaper.com/e-board_rev.asp?News_ID=3743)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시 내 유휴공간인 버스정류장을 활용해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은 생태자원이 부족한 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임.
- 이 사업의 성패는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음. 우리나라 지식경제부는 기존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發電) 사업을 2010년 발전(發電) 차액 지원제도에 포함해 시행할 계획임.

- 발전 차액 지원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정부가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건물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류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경제성을 높이고, 이를 교육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진상현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부연구위원(upperhm@sdi.re.kr)

16. 10개 저탄소 근린주구 건설 추진 (런던)

- 런던시는 태양집열판을 설치하면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저탄소 존’(Low Carbon Zones)을 10곳 지정함.
 - 33개 자치구 중 10곳의 특정지역을 저탄소 존으로 지정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함.
 - 해당 자치구는 20만 파운드(약 40억 원)의 지원금을 저탄소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1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시는 이 사업으로 친환경산업 일자리인 ‘그린칼라’(Green Collar)의 직업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462)

>>> 전문가 검토의견

- 저탄소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도시 중 하나인 런던시가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이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목표관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탄소배출 구역’ 지정제도는 향후 기후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특화정책이라고 판단됨.
 - ‘저탄소배출 구역’ 지정제도는 종래 건물 단위의 탄소배출 저감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목표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에너지 관리시장이 확대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2009. 7. 2)을 마련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지 대책을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한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물 단위의 에너지 관리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일정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저탄소 개발 유도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 탄소 배출 저감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마곡지역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목표 관리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7. Eco-Farmer 인증제도 시행 (도쿄)

- 도쿄都는 「지속가능한 농법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를 활용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화학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농업자를 Eco-Farmer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 Eco-Farmer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都가 마련한 ‘지속가능한 농법 도입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도입계획을 작성해 농업 개량보급센터에 제출해야 함.
 - 都는 신청자가 도입하려는 농법이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도입계획이 달성 가능한지를 심사한 후 Eco-Farmer로 선정함.
- 지속가능한 농법 도입지침에서는 3가지 중점기술과 17가지 세부기술을 지정하고 있음.
 - 3가지의 중점기술은 토양 관리, 화학비료·농약 저감 기술이며, 17개의 세부기술에는 화학농약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 살균, 페로몬제 사용, 복합 재배 기술 등이 있음.
 - Eco-Farmer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가지 이상의 세부기술을 도입해야 함.

- 도내에는 2009년 상반기 현재 560명의 Eco-Farmer가 있음. 이들은 Eco-Farmer 마크를 부여받고, 이를 농산물 홍보에 활용함.



Eco-Farmer 마크

(www.sangyo-rodo.metro.tokyo.jp/norin/nogyo/eco/eco.html)

(www.maff.go.jp/j/seisan/kankyo/hozen_type/h_eco/pdf/ecokitei.pdf)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Eco-Farmer 인증제도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농민에게 저농약 생산지침과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을 확대 보급하려는 정책임.
- 환경호르몬 등 화학합성물질을 줄이는 17개 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인증마크와 혜택을 부여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 우리나라는 도쿄都和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 중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법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시민에게 정보 획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최근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으려면 영농일지, 친환경 시험 인증 심사서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보건연구원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함. 이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인증 등 단계별로 인증받게 됨.
- 농업 기술인력에 더 나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친환경기술을 체계화하고, 인증과정을 통합 운영하며, 각종 혜택을 늘리고,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나아가 현장 중심의 농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한 줄 뉴스

- 쿠리치바市
 - 도시 미관을 위해 공원, 광장 등에 85만 송이의 꽃 재배
- 도쿄
 - ‘건강 워크숍’을 열어 대장암 예방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무료검진 실시

1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 전략안’ 발표 (런던)

- 런던市는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물 공급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 전략안’을 발표함.
 - 전략안에 따르면, 연중 강우량이 많아 수자원이 풍부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인구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 상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문제 등으로 런던의 물 공급 전망이 밝지 않아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물 절약방안으로, 수도관 점검과 교체, 2010년 시행 예정인 가구별 에너지효율 제고 프로그램이 이에 포함됨. 이밖에 하수 방류수의 재활용, 수도계량기 확충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전략안에는 현재 런던市 물 사용현황과 절약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런던 시민은 하루 평균 160리터의 물을 소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27%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18%, 세탁기 등 물을 사용하는 기계를 이용할 때 9%가 배출됨.
 - 현재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은 23%에 불과한데,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물 사용량이 기존보다 10~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전 시민이 샤워시간을 1분씩 줄일 경우 매년 18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총 295억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음. 이는 9만 명을 수

용할 수 있는 웹블리 축구경기장을 25번 채울 수 있는 양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418)

(www.london.gov.uk/mayor/environment/water)

19. 차량 엔진을 끈 채 냉동·냉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산시장에 설치 (도쿄)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술 종자(Seeds) 발굴과 사회시스템 실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기·주차 중인 차량의 엔진을 끈 채 외부 전원을 이용해 냉동·냉방을 하는 시스템’을 도쿄 최대 수산시장인 築地 시장에 설치하고, 2009년 8월 24일부터 운영함.

- 시장 내 트럭 대기장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대기 중인 트럭의 냉동·냉장실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함.

·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기 중인 차량의 엔진을 끌 수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21톤 줄일 수 있음. 이는 일반가정 22세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임.

· 都是 앞으로 환경 부하를 측정해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k500.htm)

● 런던

- 반사회적 행동을 이유로 청소년에게서 압수한 무료 교통카드를 봉사활동을 시킨 후 재발급
- 16~24세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직업·기술 교육 실시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리버티 축제'(Liberty Festival) 개최
- 양질의 주택디자인이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